서평: 삶과 신앙의 시적 기록, 김창길 목사님의 시와 칼럼,「이제야 알았습니다」



오화철

김창길목사님의 책,「이제야 알았습니다」는 단순한 시집이나 칼럼 모음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민자의 삶과 신앙인의 고백,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성찰과 실천이 고스란히 스며든 한 인간의 '영적 연대기'라 할 수 있습니다. 김창길목사님은 이 책에서 자신의 지나온 삶을 되짚으며, 그 안에서 경험한 신앙적 각성, 시대적 고민, 목회적 사명을 시와 산문의 형식을 빌려 고백합니다. 책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부터 독자는 단지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와 묵상의 공간으로 초대받습니다.

1. 삶에서 길어 올린 시, 그 시에서 울려 퍼지는 기도

시편에서는 무엇보다도 경험에서 길어낸 언어의 진정성이 돋보인다. 김창길목사님의 시는 수사적 장식보다 내면의 울림을 우선시한다. "하늘을 향한 꿈과 그리움"에서 수도원의 일상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며 시작된 시편은, "어머니 나의 어머니", "Monkeypod 나무 그늘", "COVID-19 병동"과 같은 작품을 통해 개인적 고통, 상실, 회복의 여정을 신앙의 눈으로 응시합니다.

목사님의 시는 시인이자 목회자인 그만의 고백이며, 동시에 독자의 영적 감수성을 일깨우는 예언자의 목소리입니다. 특히 "십자가상 앞에서", "가상칠언", "성금요일 기도" 등의 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 부활을 묵상하는 데 탁월한 신학적 깊이를 지닌 작품들로, 단순한 시적 표현을 넘어 경건의 실천서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는 시를 통해 말이 아닌 침묵으로, 주장 아닌 고백으로, 신학이 아닌 영성으로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2. 칼럼: 이민자의 시선, 목회자의 눈물, 예언자의 외침

칼럼 편은 더욱 다채롭고 밀도 높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작은 목사님이라 부릅니다", "목회의 도(道)", "설교의 강단을 놓치지 말자" 와 같은 글에서는 목회자의 정체성과 소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교회의 미래는 신학교 교육에 있다", "오늘날 교회는" 등의 글에서는 현대 교회의 위기와 과제를 신학적으로 성찰합니다. 특히 '이민 목회'의 구체성과 실존적 고민이 칼럼 전반을 통해 반복해서 드러나는데, 이는 김창길목사님이 실제로 미국에서 오랜 시간 목회를 해오며 겪은 체험에 근거합니다.

목사님의 글은 결코 이상적이거나 교조적이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면서도 그것을 변혁해갈 수 있는 신앙적 동력을 끊임없이 모색합니다. "규선아" 라는 글은 한 아버지로서, 인간 김창길의 연약함과 정직한 고백이 잘 드러난 대표적 글입니다. 이처럼 목사님의 칼럼은 설교자의 권위가 아니라, 인간적 진심과 고뇌, 연민과 용서를 바탕으로 쓰여졌기에 더욱 독자에게 감동을 줍니다.

3. 신앙, 시대, 문학이 만나는 공간

이 책에 보여지는 시와 칼럼은 신앙, 시대, 문학이 맞닿아 있는 접점에서 존재합니다. 한 시편 한 시편, 한 칼럼 한 칼럼이 각기 다른 빛깔을 띠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민자로서의 기억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책임이 씨줄과 날줄로 엮여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와 같은 현대적 고난을 신앙적으로 성찰한 "COVID-

Protestant Abbey Mission

19 병동"은 목회자의 고백임과 동시에 전 인류가 함께 겪은 고통의 신학적 해석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이 책은 '개신교 수도원 수도회' 라는 낯선 공간에서 피어난 영적 글쓰기의 성과이기도 합니다. 현대 목회자들에게는 생경한 수도원의 영성이, 김창길 목사님의 시와 칼럼을 통해 재해석되고 새롭게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글은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지 않으며, 오히려 시대의 고통과 질문을 품은 글쓰기, 시대를 위한 중보기도의 언어로서 기능합니다.

4. 신학과 문학의 따뜻한 만남, 그리고 마지막 고백

책의 서문에서 "말과 글의 근본 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손보지 않았다"고 고백한 대목은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태도와 철학을 드러냅니다. 문학적 완성도보다 신앙적 진정성, 표현의 기교보다 영혼의 울림을 우선시한 결과, 이 책은 오히려 더 강한 생명력을 획득합니다.

이번 시와 칼럼이 김창길 목사의 열네 번째 책이자, '마지막 책이 될지도 모른다'는 고백이 담긴 유작 같은 책입니다. 그만큼 이 책은 그의 삶 전체를 집약하고 있으며, 후대의 목회자와 신학생, 그리고 평신도들에게 하나의 유산으로 남을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단지 시와 칼럼의 문집이 아닌, 신앙과 존재의 고백록이자 목회적 회고록으로 이 책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서울기독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회장
한국가족문화상담협회 회장
전 뉴저지장로교회 부목사
연세대학교 신학과 (B.Th)
벤더빌트 대학교 (M.Div)
뉴욕 유니온신학대학원 기독교상담학 박사 (Ph.D.)

사모님 수련회

이민 목회자의 사모님은 외롭고 고달프다. 이중문화권과 언어 장벽의 갈등 속에 벅찬 부담감으로 피곤하다. 이민와서 새롭게 교회 나온 새신자 양육과 한국서 온 기성교회 교인들간에 상호 이해와 협조를 조정하는 역할을 목회자를 도와 담당해야 한다. 사역은 뼈빠지게 하는데 목사에게 못하는 불만을 일선에서 담당해야 하는 억울함과 고독이 있다. 사모님에게는이해와 위로가 필요하다. 개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개신교 수도원은 일년에 한번 직장과 교회와 가정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모님들을 초청해 2박 3일 함께 울고 웃으며 영육간에 회복하여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부르심의 사명을 향해 사역지로 떠나도록 섬기고 있다.

1회 2015년 6월 17(주일) – 19(화) 워싱턴 에스라 수양관,
김에스더목사 (개신교 수도원 부원장),"평화의 영성"
강사 : 강선우 사모 (김진홍목사 사모), "믿음의 능력"
2회 2016년 4월 24일 (주일) – 26일 (화) 개신교 수도원,
김에스더 목사 (개신교 수도원 부원장),"사모라는 존재"
이금하 교목 (하버드 대학교 교목), "교회란"
3회 2017년 5월 21일 (주일) – 23일 (화) 개신교 수도원,
오재은 교수"아마고 부부 대화법"
4회 2018년 4월 29일(주일) – 5월 1일(화) 개신교수도원,
정희승 사모 (Austin늘 푸른교회 사모) "기도로 움직여라"
5회 2019년 5월 19일(주일) –21일(화) 개신교 수도원,
손안젤라 목사(드류대학교수), "기쁨의 영성"
6회 2020년 4월 25일(주일)–27일 (화) 개신교수도원,
한진희 목사(뉴욕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
"여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오리라"
7회 2022년 5월 1일(주일)–3일(화) 개신교 수도원,
이상명 목사(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겸 신약학 교수),
"위드코로나 시대와 바울의 신학과 영성"
8회 2023년 4월 23일(주일) –25일 (화) 손대권 목사 (Ed.D.,
전 피츠버그 신대원 기독교교육학 교수, Presbyterian
Church in Norwood 담임목사)
"행복한 자아,건강한 가정과 교회"
9회 2024년 4월 14일(주일) – 16일(화) 나구용목사(Ph.D.,
뉴저지연합교회 원로목사)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10회 2025년 4월 27일(주일) – 29일(화) 호성기목사(필라
안디옥교회원로목사, PGM 국제대표)
"내가 변해야 공동체가 변한다"